

# 정의선 현대차 회장 취임 4년...글로벌 톱3·미래비전 잡았다

### 매출액139조·영업이익 15조 역대 최대...올해 수소차 시장점유율 1위 '올해의 차' 수상 등 브랜드 가치↑...지능형 로봇 개발 등 미래 사업 선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4년을 맞았다.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현대차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의선 회장은 '고객을 향한 끊임 없는 혁신'으로 그룹을 세계 3위 자리에 올려놓는 등 자동차를 넘어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을 '패스트 팔로어' (새로운 제품·기술을 쫓아가는 기업)에서 리더 그룹이자 자동차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변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적 권위의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는 지난해 말 정의선 회장을 '오토모티브뉴스' 올해 38인 '최고 영예인'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로 선정하면서 "정 회장의 리더십 아래 현대차그룹은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와 PBV, 전기차, 수소 에너지 분야 등에서도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취임 2년 만 글로벌 판매 '빅3' 달성·업계 최고 수익성=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최초로 글로벌 판매 3위에 올랐다. 올해까지 톱 3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올 상반기까지 도요타, 폭스바겐과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경쟁이 심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판매량 4위

에 진입했고, 올 상반기 친환경차 16만대 등 총 81만여 대를 판매해 순위를 유지했다.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률 10.7%를 기록,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39조 4599억원, 14조9059억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지난 1분기 현대차·기아의 합산 영업이익(6조9831억원)은 폭스바겐그룹의 영업이익(45억8800만유로(약 6조7935억원))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현대차·기아는 창사 이래 처음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A를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른바 신용등급 A '트리플 크라운'으로,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일본의 도요타, 혼다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차량 상품성 세계 최고 수준 반열=현대차그룹은 단순히 판매량에서만 세계 수준에 도달한 게 아니다. 차량 품질과 상품성에서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최근 10년간 '북미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 '세계 올해의 차' 등 전세계 6개 유력 시상식에서 현대차·기아는 총 66개의 상을 수상하며 2위인 폭스바겐을 크게 앞질렀다.

그 결과 기업의 재무성, 기술·상품 경쟁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 인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브랜드의 2024년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현대차는 230억달러, 기아는 81억달러를 기록했다. 양사 합계액은 311억달러, 2020년 201억달러 대비 4년 만에 54% 이상 늘었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친환경차 부문 글로벌 선도 브랜드 위상을 견고히 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높은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 E-GMP는 정의선 회장이 적극 주도한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현대차·기아는 또 주요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올해 1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세계 판매량 순위가 동시에 톱5에 오르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기반한 친환경차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밖에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올 상반기 글로벌 수소차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 주도=현대차그룹 차량 외에도 미래 모빌리티 부문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의 미래 비전과 혁신 리더십이 수소, 로보틱스, AAM, 자율주행, SDV, PBV 등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는 수소로 현대차그룹은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 수소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로보틱스도 현대차그룹의 미래 신사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로봇 활용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인공지능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지능형 로봇'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차세대 기체, 자율주행, PBV(Purpose Built Vehicle) 부문에서도 혁신을 거듭하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도,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 31일까지 해제 신청 접수 주민편의 시설 확대 등 기대

전남도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 자투리 농지로,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가 낮고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이다. 당초 6월과 8월 2차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받았으나,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달

라는 요구 증가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전남도는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해 농지 관할 시군을 통해 앞서 4개월간 접수했으며, 시군 농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관한 교육을 지난 8월 실시했다.

농지 관할 시군에서 오는 31일까지 자투리 농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면 기본 요건을 심사해 농식품부로 제출한다.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11월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전남도는 확정된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연내 이행할 계획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설치 가능한 시설이 늘어나고, 이용 규제가 완화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년 말 현재 전국 151만2000ha 농지 중 전남은 18.2%인 27만4000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76만9000ha로 이 가운데 전남은 21.7%인 16만7000ha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 전체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전국 2만1000ha의 21.7%인 4500여ha로 추정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디즈니 캣앤독 팝업스토어

### 20일까지 완구·펫용품 등 다양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13일 "오는 20일까지 광주수완점 1층 이벤트홀에서 디즈니코리아와 함께 디즈니 작품 중 강아지와 고양이 캐릭터를 테마로 하는 '캣앤독(Cats & Dogs)'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디즈니코리아 및 15개 이상의 공식 라이선스 파트너와 협업해 기획된 행사로, 전국 최초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에는 디즈니 강아지, 고양이 캐릭터를 디자인에 활용한 완구, 라이프스타일 상품, 펫용품 등 500여종의 인기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디즈니 대표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의 반려견 '플루토'와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의 주인공 '퐁고'의 테마존 등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팝업스토어 방문을 기념하는 다양한 포토존도 마련됐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 삼성전자, 국가유산과 함께하는 갤럭시 AI 체험



### 22~27일 서울 창덕궁

삼성전자는 13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22~27일 서울 창덕궁에서 '갤럭시 AI(인공지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창덕궁에서 열리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옹주, 화순·풀빛 원삼에 쓴 연서의 비밀'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Z플립6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조선 영조의 둘째 딸 '화순옹

주'의 이야기를 체험하는 내용으로, 갤럭시 AI의 '실시간 통역' 기능을 통해 내·외국인 회차 구분 없이 운영된다. 참가자는 갤럭시 화면에 원을 그리면 이미지를 자동 검색해주는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통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선 시대의 왕실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궁중문화축전과 연계해 지난 9일부터 장경궁에서 갤럭시 Z폴드6·Z플립6, 갤럭시 탭 S10 시리즈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